

삼양이노켄, BPA 15만톤 건설

군산에 2000억원 투입 2011년 10월 가동 ... 4만톤은 수출용

삼양이노켄이 2000억원을 투입해 BPA 15만톤 플랜트를 건설한다.

삼양이노켄은 군산에 PC(Polycarbonate)와 에폭시수지(Epoxy Resin)의 원료인 BPA(Bisphenol-A) 플랜트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11월11일 군산시 오식도동 자유무역지역 현장에서 박호진 사장과 문동신 군산시장, 시장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.

전체 부지(12만㎡)에 연간 15만톤의 BPA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건설해 2011년 10월부터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.

삼양이노켄은 삼양사와 일본 Mitsubishi상사(지분 20%)의 합작법인으로 BPA 군산 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4만톤은 일본과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.

군산시 관계자는 “2012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에 달하고 채용직원도 150여명에 이를 것”이라며 “연간 1000억원 이상의 BPA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11>